

문화의 다리 놓기*

— 데이비스의 《호구전》 번역 —

김 소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4. 주석 |
| II. 번역 동기와 목적 | IV. 번역 특징 |
| III. 파라텍스트 | 1. 문화소 의역 |
| 1. 표지 | 2. 가독성을 높이는 번역 |
| 2. 헌사 | V. 나오며 |
| 3. 서문 | |

I. 들어가며

《호구전(好逑傳)》은 청나라 초기 명교중인(名教中人)이 쓴 재자가인(才子佳人) 소설로, 《시경(詩經)》의 <관저(關雎)>편에서 군자(君子)의 좋은 배필을 의미하는 ‘호구(好逑)’를 제목으로 하여 남주인공 철중옥(鐵中玉)과 여주인공 수빙심(水冰心)이 수운(水運)과 과기조(過其祖)가 꾸민 갖가지 음모와 시련을 이겨내고 유가 명교(名教)의 규범에 저촉됨 없이 마침내 한 쌍의 부부로 결합하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중국소설 가운데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중국소설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었다. 본고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4652).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서는 1829년 런던에서 출간된 존 프랜시스 데이비스(John Francis Davis, 1795~1890)의 완역본 《행운의 결혼(The Fortunate Union)》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호구전》이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번역되어간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런던 북부 허트퍼드(Hertford)에 위치한 동인도회사 대학에서 공부한 데이비스는 1813년, 18세의 젊은 나이에 광주(廣州)의 영국동인도회사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주니어 서기로 일하며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이 개설한 중국어 학습반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이후 중국에 22년간 체류하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중국 소설, 희곡, 시가(詩歌) 등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힘써서 19세기 영국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번역 성취를 거두었다. 《행운의 결혼》은 그의 번역물 중 후기작에 해당하며, 데이비스의 번역이 이미 원숙한 경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그가 중국문학 번역물을 내놓은 1815년부터 1835년까지는 중영 문화 교류가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양국 간의 상호 이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데이비스는 중국과 영국 간의 문화적 차이가 매우 커서 번역가의 매개 없이는 영국 독자가 독자적으로 《호구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국원전과 영국독자 사이에서 그 간격을 좁히는 문화소통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데이비스의 《호구전》번역은 아편전쟁 직전 중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던 시기 영국인이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재창조해낸 결과물이었다. 본고에서는 번역가의 역할과 번역물의 의미전달 방식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데이비스의 번역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고, 이어서 파라텍스트(paratexts)의 기능과 번역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II. 번역 동기와 목적

사실 《호구전》의 영어 번역은 이미 18세기에 드로모어(Dromore) 주

교였던 토마스 퍼시(Thomas Percy, 1729~1811)에 의해 출간된 바 있었다.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던 시기인 1761년, 퍼시는 런던에서 《즐거운 이야기(The Pleasing History)》를 출간했는데, 이는 중국원전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퍼시의 번역은 일찍이 광주에 와서 활동했던 영국 상인 제임스 윌킨슨(James Wilkinson, ?~1736)이 번역한 영어 번역본과 포르투갈어 번역본을 토대로 만든 간접 번역이었다. 퍼시의 영역본은 제2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다시 번역한 간접 번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가정 예절, 습관, 특징을 충실히 묘사한”¹⁾ 작품으로 격찬 받았으며, 뒤이어 불역본과 독역본이 잇따라 출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퍼시의 번역에 대해 영국동인도회사가 배출한 중국전문가 조지 토마스 스타운톤(George Thomas Staunton, 1781~1859)은 “지금까지 영어로 된 책 가운데 중국사회와 관습을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한 책은 없었다”²⁾고 높이 평가했다. 데이비스 역시 퍼시의 번역본이 여태껏 유럽에 소개된 중국사회와 풍속을 묘사한 책 가운데 최고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번역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퍼시의 번역은 큰 폭의 생략과 번역가의 지나친 개입이 가해진 불완전한 번역이라고 그는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호구전》에 수록된 시사(詩詞)를 전혀 번역하지 않은 점, 둘째, 제17회의 5개 상주문이 원작의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점, 셋째, 타당한 이유 없이 원문의 회목(回目) 배열을 파괴하고 자의적으로 재구성한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번역 결함이라고 비판했다.³⁾ 데이비스는 퍼시 번역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해나갔다.

- 1) Anonymous, “Translations from the Original Chinese”, *Quarterly Review* 13, (July 1815): 409.
- 2) Tulišen, trans. by George Thomas Staunton, “Preface”, *Narrative of the Chinese Embassy to the Khan of the Tourgouth Tartars*, London: John Murray, 1821, xxiii.
- 3) J. F. Davis, “Preface”, *The Fortunate Union, A Chinese Romance, Translated from the Chinese Original* vol.1, London: John Murray, 1829, vii-ix.

당시 서양인들은 중국소설이 중국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고 여겨, 중국인의 풍속과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데이비스는 전대(前代)의 프랑스 예수회선교사들이 전한 중국정보에 의구심을 품었으며, 그들이 중국고전 번역에 치중한 결과 중국문명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 중국인들은 뛰어나게 현명하지도 않고 완벽히 도덕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⁴⁾ 예수회선교사들이 제공한 제한적이고 편향된 중국정보에 간혀 있던 유럽사회에 보다 실제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데이비스는 중국소설 《호구전》 번역에 착수했다. 당시 청 왕조는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중국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통로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물론 1757년부터 광주를 통해 서양과의 무역을 허용하는 광주체계를 운영하여 서양인의 도래를 어느 정도 허용하긴 했으나, 이 유일한 개항지에서조차 서양인은 중국인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없었다.⁵⁾ 광주에서 서양인들은 외국인 거주지에서만 생활해야 했고, 중국인 거주지로의 진입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무역 시즌이 끝나면 포르투갈령 마카오로 돌아가야 했다. 더구나 서양 상인들은 중국 공행(公行)을 통한 무역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관리를 직접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비스에게 중국은 서양과의 교류에 소극적이며 폐쇄적인 특이한 나라로 비춰졌다. 그러나 그는 영국동인도회사의 대중국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중국인들과의 문화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의 중국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그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

4) Anonymous, trans. by J. F. Davis, "Observations on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China", *Chinese Novels*, London: John Murray, 1822, 6.

5)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영국 통역가 로버트 톰(Robert Thom, 1807~1846)의 진술이 있다. 그는 1834년 광주에 와서 자던 매시언 앤 컴퍼니(Jardine, Matheson & Co.: 중국명 怡和洋行)에서 5년 동안 근무했지만, 중국 문인과 만난 적은 고작 세 번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모두 업무상의 만남이었기에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Anonymous, trans. by Sloth, "Preface",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 A Chinese Tale*, Canton: Canton Press Office, 1839, vii.

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를 달성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소설을 선택했다. 번역가의 이러한 동기로 인해 《행운의 결혼》은 서양인을 위한 정보 전달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원전 《호구전》이 중국 독자들에게 오락적이면서도 교화적인 소설로 읽혔던 것과 대조적이다.

Ⅲ. 파라텍스트

《행운의 결혼》은 런던의 유명한 출판사 존 머레이(John Murray)에서 두 권으로 출판했다. 1회부터 10회까지는 1권에, 11회부터 18회까지는 2권에 수록했다. 그리고 2권에는 〈한 왕실의 불행(The Sorrows of Han)〉, 부록, 동양번역기금 제2차 가입자 총회 결과보고서, 동방번역위원회 후원자 리스트와 출판목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파라텍스트는 책 내부와 외부에서 책의 본문을 독자에게 매개하는 장치들로서⁶⁾, 표지, 헌사, 서문, 주석 등을 포함한다. 《행운의 결혼》에서 다양하고 특별한 기능을 가진 파라텍스트가 독자들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어떤 작용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표지

(1) 겉표지

겉표지에는 “행운의 결혼, 중국 로맨스(The Fortunate Union, A Chinese Romance)”라고 표기되어 있다. 데이비스는 퍼시의 제목인 “즐거운 이야기”를 “행운의 결혼”으로 바꾸고 나서⁷⁾ “중국 로맨스”라는 부제를 추가했

6) Gérard Genette,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xviii.

7) 낭트대학교(University of Nantes) 필립 포스텔(Philippe Postel, 1966~) 교수에 따르면, 제목 변경에 있어 데이비스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 평범한 인간의 삶을 뛰어넘는 주인공과 사건을 묘사한 서사문학을 로맨스로 인식한 데이비스는 《호구전》을 기사도 정신을 지닌 영웅의 로맨틱한 사랑을 묘사한 중국 로맨스로 수용했다. 특히, 뛰어난 무공(武功)을 지닌 남주인공 철중옥이 불의한 상황을 목격하면 정의감에 불타 즉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의협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데이비스는 본문에서 그를 줄곧 “hero”로 표기했다. 로맨스는 당시 서양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문학 장르였기에, 데이비스는 이 생소한 중국소설에 친숙함의 외피를 덧씌워 서양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질감을 완화하고자 했다.

(2) 속표지

속표지는 중문 파트와 영문 파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의 중문 속표지는 중국 원서 표지 <삽도 1>을 그대로 가져와 수록함으로써, 데이비스의 번역저본이 가경(嘉慶)년간 병인년(丙寅年) 서기 1806년에 간행된 복문당(福文堂)본임을 보여준다. 2권 중문 속표지에 수록된 지도 <삽도 2>는 《행운의 결혼》이 출간되기 13년 전인 1816년, 앰허스트(Amherst) 사절단이 북경(北京)에서 운하를 따라 산둥(山東) 동창부(東昌府)로 내려갔던 경로를 표시한 것이다. 제12회에서 철중옥이 과공자(過公子)의 계략에 말려들어 한바탕 수난을 겪은 뒤, 소장을 작성해 풍안원(馮按院)을 만나러 동창부로 갔을 때 동창부가 언급되었다. 북경과 산둥 일대를 그린 이 지도는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일반 지도가 아니라, 굳이 사절단의 남하 경로를 표시한 지도를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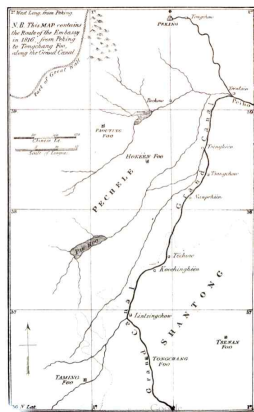
본래 프랑스에는 마크-앙투안 아이더스(Marc-Antoine Eidous, 1715~1790)가 퍼시의 영역본을 붙여로 번역한 1766년의 《호구전, 중국 이야기(Hau-kiou-choaan, Histoire chinoise)》가 있었는데 1828년에 재판하면서 제목을 《호구전, 잘 어울리는 한 쌍(Hau-kiou-choaan, ou l'Union bien assortie)》으로 바꾸었다. 아이더스 재판본의 바뀐 제목은 프랑스의 저명한 중국학자 아벨-레무자(Abel-Rémusat, 1788~1832)가 제안한 것이었다. 평소 프랑스의 중국문학 번역출판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데이비스는 이를 참고로 했을 수 있다. Philippe Postel, “Les traductions françaises du *Haoqiu zhuan*”, *Impressions d'Extrême-Orient*, (2011.2): 6.

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앰허스트 사절단은 데이비스에게 영국이 중국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로 기억되고 있었다. 가경 황제를 알현하여 급증하는 아편무역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광주체제의 한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무역항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앰허스트 사절단은 비록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북경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도중 중국 내지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소중한 경험을 함으로써 값진 선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제2권 속표지에 삽입된 이 지도는 소설의 발생지점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번역가 데이비스가 앰허스트 사절단에서 통역을 맡을 정도로 신뢰받는 번역가였음을 부각시키는 장치이기도 했다.



The Tale of the Two Sons of Heaven, or the Fortunate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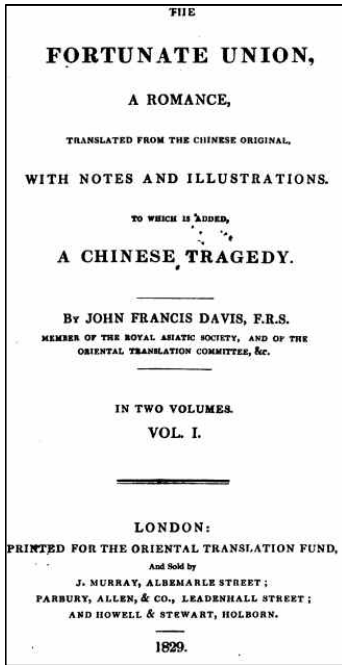
〈삽도 1〉 1권 중문 속표지



〈삽도 2〉 2권 중문 속표지

한편, 중문 속표지에 비해 영문 속표지 〈삽도 3〉은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목 바로 아래에 중국 원전에서 직접 번역했음을 명시해 퍼시의 번역을 뛰어넘는 질적으로 우수한 번역임을 강조했다. 다음 줄에는 주석과 삽도를 수록했음을 밝혔고, 이어서 중국 비극⁸⁾을 함께 수록

8) 이는 원나라 마치원(馬致遠, 1255~1321)의 희곡 《한궁추(漢宮秋)》였다. 이



〈삽도 3〉 영문 속표지

동방번역위원회 부회장이 스타운톤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결정에 스타운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결혼》에 〈한 왕실의 불행〉이 수록됨으로써, 본 번역서는 중국 유가사회의 정열부인(貞烈夫人)의 영혼을 서구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했음을 알렸다. 중간 부분에서는 번역가 데이비스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그의 학술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왕립학술회 회원, 왕립아시아협회 회원, 동방번역위원회 회원”이라는 세 개의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마지막 줄에는 본 번역서가 동방번역기금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을 명시했다. 동방번역기금은 동방의 역사, 과학, 문학 분야의 흥미롭고 가치 있는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기 위해 182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출판 지원뿐 아니라 본 번역서의 구성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행운의 결혼》에 중국 비극 〈한 왕실의 불행〉을 포함시킨 것은 동방번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⁹⁾ 그 당시

작품의 교훈은 군주의 사치와 나약함이 초래한 비참한 결과를 폭로하는데 있으며, 중국에는 희극과 비극의 구분이 없으나, 유럽적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은 비극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데이비스는 설명했다. 〈한 왕실의 불행〉에 딸린 번역가 서문을 보면, 이 작품은 행동의 통일성이 완벽하며, 시간과 장소의 통일성이 유럽 무대보다 훨씬 잘 구현되어 있고, 주제의 심원함과 엄숙함, 인물의 계급과 품위, 비극적 파국, 시적 정의에 대한 엄격한 심판 등으로 인해 그리스 규범을 준수하는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9) J. F. Davis, 앞의 책, xx.

2. 헌사

데이비스는 영국동인도회사 선임이자 중국학 분야의 멘토였던 스타운톤에게 헌정하는 헌사를 써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데이비스가 광주의 영국동인도회사에 처음 왔을 때 스타운톤은 이미 그 회사의 특별위원회 회장이었으며, 1810년 《대청율례(大清律例)》를 번역한 이래 중국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었다. 두 사람은 영국동인도회사 선임과 후임 간의 끈끈한 유대감 위에 중국학 분야의 스승과 제자로서 존중과 신뢰를 줄곧 유지했다. 스타운톤은 1821년에 데이비스의 재능과 성실성을 아껴 ‘젊고 뛰어난 중국학자’¹⁰⁾라고 격찬했으며, 아편전쟁이 끝난 1843년에는 그를 영국 외교부에 홍콩총독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19세기 초기 영국의 중국학을 이끈 핵심인물 스타운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헌사에서 드러냄으로써 데이비스의 번역이 단순한 문학적 작업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주었다.

3. 서문

데이비스는 중국 원전의 서문은 빼고 그 대신 번역가 서문을 넣었다. 16쪽에 달하는 긴 편폭의 서문은 번역가가 전면에 등장하여 독자들에게 독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별한 사항들을 짚어줌으로써 독서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문의 첫머리에서 데이비스는 번역 작업에 도움을 준 두 명의 영국인, 《화영자전(華英字典)》을 편찬한 모리슨과 왕립학술회 회원이자 영국동인도회사에서 근무했던 식물학자 존 리브스(John Reeves, 1774~1856)¹¹⁾에

10) Tulišen, 앞의 책, xxiv.

11) 리브스는 해박한 식물 지식으로 인해 1808년부터 중국 차(茶) 검사관으로 일했고, 1812년에는 영국동인도회사에 고용되어 중국으로 파견되었다. 19년 동안 중국에 체류한 뒤, 1831년에 영국으로 돌아갔다.

게 감사를 표했다. 리브스는 중국 자연사에 정통한 학자로, 식물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번역 작업에 기여했다.

한편, 《행운의 결혼》은 데이비스가 중국 현실에 대한 최신의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목적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청나라가 아닌 명나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소설이었다. 데이비스는 이로 인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변화만 제외하면 명나라 시대와 당시 청나라의 중국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해명을 서문에 추가했다.

서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퍼시 번역의 가치와 한계, 원작의 특징, 중국의 결혼 문화, 중국시의 번역 문제 등이다.¹²⁾ 먼저, 데이비스는 원작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 삶의 환경 그리고 소원, 두려움, 분노, 쾌락, 기쁨, 담론 등 갖가지 다양성이 현지인의 손에 의해 묘사된 《행운의 결혼》에서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특이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재미있고 시끌벅적한 장면, 대화의 정신, 모든 등장인물의 선명한 묘사와 엄격한 보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으로 훌륭한 교훈과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은 중국인의 취향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¹³⁾

이상에서와 같이, 데이비스는 《행운의 결혼》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조차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없었던 중국인의 삶을 엿볼 수 있으며, 오락성, 문학성, 교훈성을 모두 갖춘 이 소설은 서양 독자들이 중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작품이 악의적이고 야비한 자들은 벌을 받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자들은 영광을 누리는 권선징악적 결말을 지니고 있으며, 유가사상이 남녀주인공을 통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가는 덕을 숭상하고 자족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고대 스토아학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데이비스는 이 작품을

12) 퍼시의 번역에 관한 데이비스의 평가는 II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같음한다.

13) J. F. Davis, 앞의 책, x.

통해 유가를 사후세계가 아닌 현세에서의 미덕 실천을 강조하는 스토아학파와의 유사성 속에서 이해했으며, 의협정신과 유가사상을 혼동하여 유가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했다. 그는 “유가는 지혜와 실질적인 탁월함에서 굉장히 우수하지만, 여타의 모든 교리 체계처럼 원칙과 실천면에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유학자들은 때로 복수를 행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겸손의 미덕도 실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데이비스가 의협정신과 유가사상을 견비한 소설 속 허구인물 철중옥을 통해 유가를 이해하면서 생긴 오해였다. 사실 중국 전통문학에서 복수는 협객(俠客)이 불의한 자들을 처벌했던 행위일 뿐, 용서와 인의를 주창한 유가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그는 유가의 특징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데이비스는 중국의 결혼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행운의 결혼》은 영웅이 아내를 한 명만 둔다는 점에서 중국인의 관습을 훨씬 충실하게 묘사했다고 간주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첩을 허용하긴 했으나, 그들의 법이 일부다처제를 승인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중국인은 처(妻)라고 불리는 아내 한명만 취할 수 있는데, 처는 호칭으로 구별되고 예식을 치르며 계급에서 선택된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많게 또는 적게 취할 수 있는 첩 즉 하녀와는 완전히 다르다. 첩의 자식이 많은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그러나 처의 자식 다음 순위임) 이러한 상황이 [처가 갖는—필자주] 지위의 진실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¹⁴⁾

위 인용문에 따르면, 중국남성은 ‘처’라고 불리는 1명의 정실부인만 취하며, 처는 남편과 대등한 계급출신이며, 혼인예식을 정식으로 치르며, 확실한 법적 권리도 보장받기 때문에 하녀 출신인 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첩은 위계와 권력에 있어서 처와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데이비스는 중국이 여러 명의 처를 취하는 일부다처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당

14) 같은 책, xiv. 위 인용문에서 아내 한명만, 첩, 일부다처제, 처 등을 기울임 표기한 이유는 데이비스의 번역문에 이 단어들이 이탤릭체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에 따른 것이다.

시 서양인들은 일부다처제를 야만적인 문화라고 여겼기 때문에 데이비스는 서양 독자의 불쾌감을 완화하기 위해 《행운의 결혼》에서 그것을 연상시키는 사건은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행운의 결혼》에서 과공자가 수빙심의 사촌 언니와 결혼한 후 다시 수빙심과 결혼하려고 한 일, 그리고 2명의 아내와 결혼한 남성을 묘사한 여타의 중국 소설들¹⁵⁾은 현존하는 관습에 대한 진실한 묘사가 아니다”¹⁶⁾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같이 번역가는 문화적 조정을 통해 중국문화에 대한 서양 독자의 불쾌감을 줄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함축적 의미가 가득한 중국시를 번역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시의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둔 의역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중국어 학습자를 위해 글자 그대로의 축자역을 별도의 부록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축자역을 추가한 것은 그의 번역본이 어학교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또한 그는 프랑스 학자의 번역 실수를 일부러 언급하며, 시 번역이라는 까다롭고 난해한 작업을 완수한 자신의 실력을 과시했다. 예컨대, 아벨-레위자 교수의 《옥교리(玉嬌梨)》 번역에 보이는

15) 이는 데이비스가 1822년 번역했던 이어(李漁, 1611~1680)의 《십이루(十二樓)》에 수록된 〈합영루(合影樓)〉와 〈탈금루(奪錦樓)〉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자신이 번역한 《중국 소설(Chinese Novels)》 서문에서 남성이 2명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 유럽 독자들은 이상하고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16) 데이비스가 처와 첩의 문제에 민감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제4회에서 수운이 자신의 딸을 과공자에게 시집보낸 뒤, 또다시 조카 수빙심을 과공자에게 시집보낼 계략을 꾸미는 장면에서, 데이비스는 각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했다. “수운은 경첩(庚帖)에 수빙심의 사주팔자를 고쳐 써서 과공자에게 시집보내려고 애썼는데, 이는 수운의 딸을 아내에서 첩으로 강등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가 자기 딸의 치욕을 제안하는 이 부분에서 중국 작가는 수운을 매우 경멸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할 기회를 포착했다. 그런데 이는 한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보인 행동과는 크게 다르다.”(J. F. Davis, 앞의 책, 80쪽.) 사실 중국 원문에서 이 장면은 수운이 조카 수빙심을 서둘러 시집보내고 형 수거일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탐욕을 부각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이러한 원작의 의도를 간과하고, 오히려 딸을 첩으로 강등시키려는 비도덕적인 아버지의 행동이 부각된 것으로 이해했다.

오역을 지적했으며, 자신의 〈한 왕실의 불행〉 번역에 대한 율리우스 하인리히 클라프로트(Julius Heinrich Klaproth, 1783~1835)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중국어 능력을 뽐냈다. 사실 이러한 지적 이면에는 프랑스 학계에 대한 경쟁심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보다 약 1세기 늦게 중국연구를 시작한 상황이었기에, 프랑스를 뛰어넘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데이비스는 프랑스 학자들이 중국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 반면, 영국인은 중국현지에서 직접 경험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을 강조함으로써 유럽에서 영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¹⁷⁾

4. 주석

주석은 중국인의 생활 습속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 형식으로 달려 있다. 이는 본 번역본이 정보전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1권에 153개, 2권에 58개 총 211개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방대하다. 주석은 본문의 내용 이해를 돕는 역할과 동시에 번역가가 중국의 어떤 모습에 호기심을 보였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각주의 기능은 대체로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 고대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비간(比干), 노남자(魯男子), 유하혜(柳下惠), 홍불(紅拂) 등에 대해 각주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자가 칭송했던 성인(聖人) 노남자와 춘추시대 노나라의 대부 유하

17) 영국 사회에서 프랑스의 중국학자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이미 1815년부터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간 리뷰(Quarterly Review)》 13권(July, 1815) 408-418쪽에 모리슨과 데이비스가 공역한 《중국 원문의 번역(Translations from the Original Chinese)》(1815년)에 대한 리뷰가 실렸는데, 이 글에서 익명의 필자는 아벨-레위자가 중국인을 문학과 문명의 계층구조에서 너무 높게 서열을 매겼다고 비난하면서 이제는 중국고전을 떠나 실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에 대한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남자는 부득이하게 한 여성과 같은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자신과 여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불을 밝힌 양초와 책을 가지고 밤을 지새웠다고 전해진다. 유헤는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공자가 직접 칭송한 사람이다.”¹⁸⁾ 특히, 노남자는 이 작품에서 찬미의 대상으로 여러 차례 언급된 인물이다. 최중회인 제18회에서 철중옥이 수빙십의 집에 기거할 때 명교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황제가 철중옥을 노남자에 비견하며 칭송하는 장면에서 재차 강조되었다. 만일 각주의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면 서양 독자들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사물과 풍속, 규범에 대한 설명이다. 지현의 관아 앞에 놓인 북의 용도, 무소뿔로 만든 큰 술잔(大觥), 정표(旌表) 등 중국 특색의 사물에 대한 설명은 물론 중국의 독특한 풍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일례로 배필을 정하기 전에 사주가 적힌 경첩을 상대측에게 보내어 길흉화복을 점치는 풍속, 중국 관료사회의 부패상, 관리는 자신의 고향에서 관직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관할구역 내에서 토지나 가옥을 매입할 수 없는 규정 등을 각주에서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앰허스트 사절단의 경험을 반영한 각주도 있는데, 가령 제1회에서 철공자가 북경에 계신 부친에게 가려고 꾸린 행장에 대해 “이는 일반적으로 누울 수 있는 이불이나 매트 그리고 딱딱한 베개로 구성된다. 중국인들은 과도한 짐으로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1816년 사절단이 지녔던 대량의 짐에 놀라움을 표현하곤 했다.”¹⁹⁾ 또, 제2회에서 황금색 천으로 쓴 성지(聖旨)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장면에서 “이것은 바로 조지4세 섭정 왕세자에게 보내는 황제의 서신을 켄톤 총독이 앰허스트 경에게 전한 방식이다”²⁰⁾고 각주를 달았다. 번역가의 사절단 경험을 반영한 이런 각주는 독자에게 생생한

18) J. F. Davis, 앞의 책, 128쪽.

19) 같은 책, 5쪽.

20) 같은 책, 40쪽.

현장감을 전달함으로써 독서의 재미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또, 각주에서 영국문화와의 차이점을 짚어주기도 했는데, 일례로 제13회에서 중국법정에서 증인과 죄수를 똑같이 거칠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으며, 제6회에서 수빙심이 수거일을 사면한다는 가짜 성지(聖旨)를 만든자와 자신을 납치한 자들을 성토하는 장면에서 “대개의 경우, 중국 법은 정범과 사전 방조범을 구분해서 후자를 전자보다 1단계 낮게 처벌하는 반면, 우리 법은 사전 방조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며, 사후 방조범은 밝혀야 하는 사건을 단순히 은폐한 자로써 처벌한다”²¹⁾는 각주를 달아 법률 조항에 있어서 중영 양국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셋째, 본문에서 의역한 속담, 비유적 표현 등을 글자 그대로 번역한 축자역을 각주에서 제공했다. 의역으로 인해 상실된 중국 원문의 표현을 축자역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중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 중국 원전의 표현이 유럽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유사한 경우에는 유럽 표현을 직접 인용해서 비교함으로써 양자 간의 유사점을 부각시켰다. 제7회에서 철공자로부터 식견이 뛰어나다는 찬사를 받은 수빙심이 “公子譽之過情, 令人赧顏汗下(공자께서 지나치게 칭찬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흐릅니다)”라고 말할 때, 데이비스는 각주를 통해 이 표현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Vergilius, B.C. 70-19)의 서사시 《아이네이스(The Aeneid)》에서 여신을 묘사한 라틴어 “Salsusque per artus Sudor iit(땀이 그녀의 온몸을 흘러 내렸다)”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²²⁾

넷째, 번역가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했다. 일례로, 제6회에서 부친 수거일이 멀리 유배 가서 부재한 상황에서 철중옥을 집으로 데려와 병간호를 한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수운의 비난을 받은 수빙심은 위험에 빠진 자신을 구해주느라 그가 병을 얻었으니 은혜를 갚아야 했다고 해명하면서 맹자의 권도(權道)를 자기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예법에 지나치

21) 같은 책, 151쪽.

22) 같은 책, 170쪽.

게 구속되면 오히려 대의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마음만 올바르게 먹으면 예법에 다소 저촉되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당당하게 주장했다. 명교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융통성 있게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된 이 대목에서 데이비스는 각주를 통해 “젊은 여성의 이러한 변호는 중국인의 도덕 정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표본이다”²³⁾는 견해를 덧붙였다. 또 수빙심이 수운의 면전에서 맹자와 태사공(太史公)의 가르침을 열거한 장면에서 데이비스는 “무식한 수운을 그런 일련의 권위들로 압도하는 것은 다소 익살스러워 보인다”라고 각주를 달았다.²⁴⁾

IV. 번역 특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비스는 원전을 존중하면서도 가능한 서양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번역했다. 중국문화의 색채가 강한 표현들은 대부분 의역했으며, 서양인의 독서 습관에 맞추기 위해 문화적 조정을 가했다.

1. 문화소 의역

문화소(文化素)는 특정 문화와 관련된 요소로서, 《호구전》에는 전고(典故), 언어유희, 비유, 관용어 등이 있다. 중국문화의 특색이 담긴 표현은 독자역했을 때 원문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를 중재하기 위해 데이비스는 단어가 아닌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번역하는 의역 방식을 사용했다. 의역은 독자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명확함을 최소화하고 중국문화와의

23) 같은 책, 148쪽.

24) 같은 책, 149쪽.

거리를 좁히는데 있어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1) 전고

전고를 인용한 부분에서 의역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제 8회에서 철중옥이 수빙심과 결혼하는 것은 《시경》의 온유돈후한 시교(詩教)에 완전히 부합하여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는다는 지현의 대사에서, 요조숙녀를 배필로 맞이하고픈 남성의 염원을 노래한 《시경》의 〈관저〉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결혼을 축복한 〈도요(桃夭)〉가 언급되었다.

[원문] 縣尊道: “……倘真心念河洲君子之難得, 憐窈窕淑女之不易逢, 而欲彰關雎雅化, 桃夭盛風, 則又何爲不可, 而避之如讎哉?”²⁵⁾ (지현은 말했다. “…… 만일 진심으로 강가 모래섬의 군자를 얻기 어려움을 고려하고 요조숙녀를 만나기 쉽지 않음을 가엾게 여기고, 관저의 교화와 도요의 풍속을 번성케 한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뭐가 안 될게 있다고 원수처럼 피한단 말이요?”)

[데이비스 번역문] replied he, “……but if, on the contrary, you consider the difficulty of meeting with a worthy match, and endeavour to conclude so excellent an union, what possible objection can there be, or why need you avoid her like an enemy?”²⁶⁾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훌륭한 상대를 만나기 어려움을 고려해서 그렇게 훌륭한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한다면, 거기에 무슨 이론이 있을 수 있으며 그녀를 원수처럼 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에서, 데이비스는 ‘河洲君子’, ‘窈窕淑女’, ‘關雎’, ‘桃夭’ 등을 “a worthy match(훌륭한 상대)”, “so excellent an union(그렇게 훌륭한 결혼)”으로 일 반화하여 그 의미만 번역했다.

또, 제7회에서 인물전고로 포자(鮑子)가 인용되었다. 이는 관포지교(管

25) 名教中人, 《好述傳》(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61쪽.

26) J. F. Davis, 앞의 책, 191쪽.

鮑之交)로 유명한 포숙(鮑叔)을 가리키는데, 포자를 음역할 경우 중국역사와 민간고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서양독자는 원문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데이비스는 ‘friend’라고 일반화해서 번역했다.²⁷⁾

(2) 언어유희

중국 민간사회의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언어유희 역시 의미 중심의 번역에 따랐다. 그로 인해 중국어의 해학성은 전달되지 못하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전체적 의미만 전달되었다. 일례로 제5회에서 과공자가 보낸 가마꾼들이 수빙심을 태우고 관아로 가던 도중 철공자에게 저지당했을 때, 그들은 철공자의 이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놀렸다.

[원문] “莫道你是鐵將蓬，你就是金將蓬玉將蓬，拿到縣中，也要打的粉碎!”²⁸⁾
(당신이 철상공이 아니라 금상공 옥상공이라 하더라도 지현에게 가면 산산조각날 것이오.)

[데이비스 번역문] “Whoever you are, come along with us to the magistrate’s, where you shall be properly handled.”²⁹⁾ (당신이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지현의 관아로 가면, 거기서 당신은 적절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위의 예문에서 철상공, 금상공, 옥상공의 점층적으로 상승하는 표현법을 구사한 하층민의 유머와 풍자는 단순히 ‘당신이 누구든지’로 번역됨으로써 원문의 묘미를 상실했다. 원문에서는 철→금→옥으로 철공자를 풍자하면서 그가 어떤 고귀한 재능을 가졌든 결국 지현에게 가면 깨질 것이라고 했으나, 번역문에서는 점층적 표현의 해학성은 사라지고 그 지시적 의미만 옮겨졌다.

27) 같은 책, 167쪽.

28) 名教中人, 앞의 책, 36쪽.

29) J. F. Davis, 앞의 책, 112쪽.

(3) 비유

중국적 비유 역시 의미만 전달되었을 뿐 그 표현법은 옮겨지지 않았다. 일례로, 제2회에서 대패후(大夫侯) 사리(沙利)가 생원(生員) 한원(韓愿)의 딸을 납치한 사건을 철공자가 해결함으로써 그는 폭력적인 권세가로부터 고통당한 선량한 백성을 구해준 의인으로 추앙받는다. 이때 부친 도찰원어사 철영(鐵英)은 이로써 야기될 재앙을 우려하여 철공자에게 유학(遊學)을 핑계 삼아 다른 지역으로 즉시 떠나라고 하면서 용의 비유를 들었다.

[원문] 如神龍之見其首, 不見其尾, 使人莫測, 此知機所以為神也.³⁰⁾ (신령한 용은 머리만 보이고 꼬리는 안 보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짐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용의 신묘한 바이다.)

[데이비스 번역문] It will have the usual effect of magnifying your merits, as every thing which is imperfectly known, is more esteemed than that which is familiar and vulgar. (불완전하게 알려진 모든 것이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것처럼, 네 장점을 강화하는 통상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³¹⁾

원문에서는 중국에서 숭배하는 신령한 용이 꼬리는 감춘 채 머리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경외심을 자아낸다는 비유를 들었는데, 번역문에서는 용의 비유를 없애고 자신을 일부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품게 한다는 그 전체적인 의미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역했다.

(4) 관용어

관용어를 의역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³²⁾

30) 名教中人, 앞의 책, 15쪽.

31) J. F. Davis, 앞의 책, 47쪽.

32) 관용어의 번역에서는 간혹 축자역도 사용되었다. 축자역이 사용된 경우를 예

회목	중국 원문	번역문
2회	寧爲鷄口，勿爲牛後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	better be honored among the little, than despised among the great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받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것이 낫다)
6회	騎虎之勢 (호랑이 등에 탄 형세)	his situation is desperate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6회	風馬牛毫不相及 (바람난 소나 말이 서로 이르지 못한다. 즉 전혀 상관이 없음을 뜻함)	without any previous acquaintance (이전에 아는 사람이 아니었음)
7회	操舟利南，馳馬利北 (배를 몰려면 남쪽으로 가는 게 이롭고, 말을 타고 달리려면 북쪽으로 가는 게 이롭다)	what is suited to one part of the empire is not suited to another (제국의 한 지역에 적합한 것이 다른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17회	不欺暗室 (어두운 방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음)	the proofs of their innocence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들)
17회	吹求 (털을 붙어 헤쳐서 그 안의 흙을 찾아냄)	attacks (공격들)
17회	輾轉反側 (이리저리 구르고 옆치락뒤치락하다)	the least opposition or doubt (최소한의 반대나 의심)
17회	男女授受不親 (남녀간에 친히 주고 받지 않는다)	the separation between the sexes (양성 간의 분리)

2. 가독성을 높이는 번역

(1) 고유명사 번역

등장인물의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음역을 원칙으로 삼

로 들자면, 제18회에서 “漏網之魚”(그물을 빠져나간 물고기)를 “a fish that by good luck had slipped out the net”(운 좋게 그물 밖으로 빠져나간 물고기)로 번역했다.

았다. 특히, 인명을 음역할 때 연계접속사 하이픈의 사용을 되도록 피했는데, 이는 중국인의 이름이 단일어로 발음되기 때문에 하이픈을 사용할 경우 이름을 통합하기보다는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데이비스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중국소설에서 인명은 등장인물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나, 음역으로 인해 그 함축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얼음처럼 깨끗한 영혼을 의미하는 ‘수빙심(水冰心)’은 ‘Shueypingsin’으로, 한 곳에서만 거주한다는 뜻으로 곧은 지조를 암시하는 ‘수거일(水居一)’은 ‘Shueykeuyih’로, 조상에게 누를 끼친다는 뜻의 ‘과기조(過其祖)’는 ‘Kwoketsu’로, 기이한 책략을 꾸민다는 뜻의 ‘성기(成奇)’는 ‘Chingkee’로 음역되었다.³³⁾ 주변인물의 경우, 이름을 생략하고 단순히 부인(lady) 또는 딸(daughter) 등 가족호칭으로 표기하거나, 직함으로 대체했다. 예를 들어, ‘韋佩(위패)’는 ‘the scholar(서생)’³⁴⁾ 또는 ‘new magistrate(새 지현)’³⁵⁾, ‘侯孝(후효)’는 ‘military leader(대장)’³⁶⁾, ‘單祐(단우)’는 ‘a skillful spy(유능한 스파이)’³⁷⁾, ‘過隆棟(과용동)’은 ‘minister(장관)’³⁸⁾, ‘萬諤(만악)’은 ‘the guilty member of the Censorate(검열기관의 유죄 멤버)’³⁹⁾로 각각 대체했다. 데이비스는 중국인의 이름이 서구 독자들에게 생소하고 발음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이름이 등장할 경우 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

서양 독자들의 이해의 수월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 인물에 대한 호칭은 1개로 간소화하여 별호(別號), 자(字)

33) 예외가 있는데, 남주인공 철중육과 독수화상(獨修和尚)의 이름은 음역을 한 뒤 각주에서 이름에 내포된 의미를 별도로 설명했다. J. F. Davis, 앞의 책, 2쪽과 129쪽 참조.

34) 같은 책 vol. 2, 170쪽.

35) 같은 책, 205쪽.

36) 같은 책 vol. 1, 53쪽.

37) 같은 책 vol. 2, 196쪽.

38) 같은 책, 193쪽.

39) 같은 책, 204쪽.

등은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낮은 외래어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럽인에게 어색하고 진부한 느낌을 주는 극존칭은 생략했으며, 수빙심이 자신을 낮추어 지칭한 ‘賤妾(천첩)’이라는 겸양어도 번역하지 않았다. 이 단어는 중국의 남존여비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인식하는 심리적 상태와 남성을 존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데, 서양인에게는 과도한 자기 비하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생략했다. 또, 시종 이름 앞에 Mr., Mrs., Miss 등을 붙이게 되면 원본의 느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진다고 판단해서 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서양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불쾌하고 거북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중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자 했다.

그리고 서양 독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등장 인물의 이름 대신 가족호칭 및 특정한 상황에서 생겨난 호칭으로 대체했다. 예를 들자면, 제4회에서 수운과 과공자의 대화에서 과공자를 ‘사위(son-in-law)’⁴⁰⁾로 번역함으로써 수운과 과공자의 인척 관계를 부각시켰다. 이로 인해 이미 아내가 있는데 또다시 아내를 취하려는 과공자의 탐욕이 한층 두드러졌다. 제17회에서 철중옥의 부친 ‘鐵都院’을 수빙심의 입장에서 ‘father-in-law(시아버지)’⁴¹⁾로 번역했으며, 제18회에서 ‘過其祖’를 ‘the minister's son(장관의 아들)’⁴²⁾, ‘水居一’을 ‘the young lady's father(소녀의 아버지)’⁴³⁾로 번역했다. 특정한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 호칭을 바꾸어 쓴 경우는 제7회에서 독수화상(獨修和尚)의 계약에 빠져 병이 난 철중옥이 수빙심의 집에 가서 간호 받을 때 수빙심을 가리켜 “그의 여주인(his hostess)”이라고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제5회에서 지현이 과공자를 부를 때 “내 친한 친구(my good friend)”⁴⁴⁾로 번역하여 두 사람의

40) 같은 책 vol. 1, 92-93쪽.

41) 같은 책 vol. 2, 186쪽.

42) 같은 책, 191쪽.

43) 같은 책, 193쪽.

개인적 친밀성을 부각시켰다.

이밖에, 중국 역대 왕조의 명칭은 생략했으며 지명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생략했다. 일례로 제8회에 “我又不是你曆城縣人, 又不少你曆城縣的錢糧(나는 너희 역성현 사람도 아니고 너희 역성현에 돈도 빚지 않았다)”을 “I do not belong to this district ; I owe the government no dues⁴⁵⁾(나는 이 지역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 관청에 납부할 세금도 없다)”라고 지명 ‘曆城縣’을 생략했다. 도량형의 경우에는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 里(리)는 mile, 중량을 재는 단위 斤(근)은 pound로 영국식으로 환산해서 표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지명을 연이어 표기할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소도시 순서로 적는 중국식을 영어식으로 바꾸어 소도시에서 대도시 순으로 나열했다. 일례로, 제3회 “山東濟南府曆城縣(산동 제남부 역성현)”을 “In Leihching Hëen, a subordinate district dependent on the chief city of Shantung province⁴⁶⁾(레칭셴, 산둥성 주요 도시에 속한 하위 지구)”로 번역했다. 또 원문에서는 소속 혹은 직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썼는데, 이와 반대로 번역본에서는 이름을 먼저 쓰고 소속 또는 직함을 그 다음에 썼다. 제18회에 포지현이 올린 상소문에서 “兵部侍郎今升尚書水居一之女水冰心(병부시랑으로 지금은 상서에 오른 수거일의 딸 수빙심)”을 “Shueypingsin, daughter of Shuekeuyih, then member, and now president of the military tribunal⁴⁷⁾(수빙심, 수거일의 딸, 당시에는 군사재판소 위원이었으나 현재는 군사재판소장)”로 번역했다.

44) 같은 책 vol. 1, 126쪽.

45) 같은 책, 188쪽.

46) 같은 책, 50쪽.

47) 같은 책 vol. 2, 193쪽.

(2) 번역가의 적극적 개입

① 첨삭

드물기는 해도 번역가가 임의로 문구를 첨가하기도 했다. 제5회에서 수빙심을 억지로 가마에 태워서 관아로 가던 도중에 우연히 철중옥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 때 데이비스는 수빙심과 철중옥은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는 서술을 첨가했다.

[원문] 又倚著過家勢力亂沖來, 不怕人不讓. 不期將到縣前, 忽撞見鐵公子到濟南來遊學.....⁴⁸⁾ (과씨 집안의 세력을 믿고 마구 돌진해오는데 다른 사람이 비켜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뜻밖에도 지현 관아 앞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제남에 유학 온 철공자와 별안간 마주쳤다.)

[데이비스 번역문] Confident in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 master whom they served, they were speeding along in this manner, without regarding any obstacles, when it was fated they should fall in with Teihchungyu, who had lately entered the province of Shandong on his travels.....⁴⁹⁾ (자신들이 섬기는 주인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신한 그들은 어떤 장애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마침 여행 중에 산동에 들어온 테충위와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

위 예문을 보면, 원문에서는 단순히 수빙심을 태운 가마와 철중옥과 우연히 마주친 장면을 묘사하는데 그쳤으나, 데이비스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될 운명이었다는 서술을 첨가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짝이라는 운명적 인연을 환기시킴으로써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로써 중국원전 《호구전》은 서구적 로맨스의 요소가 강화되었다.

삭제된 사례도 확인된다. 제3회에서 수운이 수빙심에게 속아 자신의 딸을 과공자에게 시집보낸 뒤, 지부(知府)에게 불려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48) 名教中人, 앞의 책, 36쪽.

49) J. F. Davis, 앞의 책 vol. 1, 111쪽.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한 대목이 삭제되었다.⁵⁰⁾ 이는 앞서 발생한 사건의 불필요한 반복으로, 독자들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과공자와 수운의 딸이 혼례를 마치고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나누는 묘사도 삭제되었다. 중국의 문화와 사회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번역가에게 양성간의 육체적 결합에 대한 소설적 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② 변형

첫째, 등장인물간의 대화를 그대로 번역하는 대신 그 내용을 요약하여 간접회법으로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했다.

둘째, 특정 단어 또는 시사(詩詞)를 이탤릭체로 바꾸어서 표기했다. 이탤릭체는 특정 글자나 문장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여 독자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각시킴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유도했다. 일례를 들자면, 제18회에 포지현이 쓴 상주문의 서두에서 ‘virtue(미덕), heroism(영웅주의), integrity(정직), talent(재능)’ 등의 단어가 이탤릭체로 표기되었고, 수빙심이 과공자의 음모에 기지를 발휘하여 용케 벗어난 3가지 사건을 차례대로 서술할 때 ‘first(첫 번째), second(두 번째), third(세 번째)’를 이탤릭체로 표기하여 강조했다.⁵¹⁾ 또 제5회에서 철공자가 수빙심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는 그 전체를 모두 이탤릭체로 바꾸어 표기했다.⁵²⁾ 수빙심에 대한 철공자의 사랑이 싹트는 계기가 되는 이 장면은 로맨틱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끝으로, 유일하게 대문자에다 보드체로 표기해서 최고로 강조한 글자가 있는데 바로 ‘好逑’의 번역어 ‘FORTUNATE UNIONS(행운의 결혼)’⁵³⁾였다.

50) 같은 책, 79쪽.

51) 같은 책 vol. 2, 194-195쪽.

52) 같은 책 vol. 1, 118-120쪽.

53) 같은 책 vol. 2, 203쪽.

V. 나오며

1829년에 나온 데이비스의 번역 《행운의 결혼》은 영국의 아편 밀수가 급증하며 중영 양국의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고조되던 시기에 서양 독자들이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다. 중국문화를 전하는 문화매개자로 자처한 데이비스는 원문에 충실하고 정확한 번역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얇고 피상적인 서양 독자들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중국 정보를 제공하고자 《호구전》을 번역했다. 데이비스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서양독자의 수용성이라는 양극단의 과제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서양 독자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의역을 사용하고, 첨삭과 변형을 과감하게 가했다. 그는 서문과 각주 등 다양한 파라텍스트를 활용해 서양 독자들에게 중국 문화를 상세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적 조정이 가해지고 이해의 한계도 드러났다. 그 결과, 중국 사회를 진정성 있게 설명하려 했던 당초의 의도와 달리, 데이비스의 번역에는 서양인의 제한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당시 영국인의 시각이 반영되었다. 특히, 원작을 로맨스로 재구성한 데이비스의 번역은 원작이 지닌 유가적 윤리도덕관과 교화적 의미를 약화시켰으며, 원작의 문화적 깊이와 사회적 메시지가 일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행운의 결혼》에 대한 당시의 리뷰를 보면, 익명의 필자는 이를 퍼시의 번역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호평했다. “데이비스의 번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충실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즐거운 이야기》에서 완전히 생략된 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호기심을 끄는 각주도 많다. 이러한 각주는 주로 개인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 데이비스는 중국어에 대한 지식을 매우 성공적으로 함양해왔으나, 번역본의 문체는 그가 유럽의 인문학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⁵⁴⁾ 이 리뷰를 통해, 데이비스가 문화적 조정을 가

한 번역이 당시 영국 독자들을 만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 번역의 완전성과 충실함, 모든 시사를 번역한 점, 그리고 개인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각주로 인해 당대 영국 독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데이비스는 중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럽 인문학적 전통을 결합하여, 서구 문학적 감수성과 중국 문화를 동시에 담아냈다. 그의 번역은 19세기 전반기 서양 독자들에게 중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 참고문헌 >

名教中人, 《好逑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Anonymous, “Translations from the Original Chinese”, *Quarterly Review* 13, July 1815.

Anonymous, trans. by J. F. Davis, *Chinese Novels*, London: John Murray, 1822.

Anonymous, “Review of John Davis's *Fortunate Union*”, *The Literary Gazette* 28, 1829.

Anonymous, trans. by Sloth, *The Lasting Resentment of Miss Keaou Lwan Wang, a Chinese Tale*, Canton: Canton Press Office, 1839.

Gerard Genette, *Paratexts :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James St. André, “Retranslation as Argument: Canon Formation, Professionalization, and International Rivalry in 19th Century Sinological Translation”, *Cadernos de Tradução* 11, 2003.

John Francis Davis, *The Fortunate Union, A Chinese Romance, Translated*

54) Anonymous, “Review of John Davis's *Fortunate Union*”, *The Literary Gazette* 28, (1829): 772.

- from the Chinese Original* vol.1-2, London: John Murray, 1829.
- Philippe Postel, “Les traductions françaises du *Haoqiu zhuan*”, *Impressions d’Extrême-Orient* 2, 2011.
- Tulišen, trans. by George Thomas Staunton, *Narrative of the Chinese Embassy to the Khan of the Tourgouth Tartars*, London: John Murray, 1821.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John Francis Davis’s English translation of *Haoqiu zhuan* (*The Fortunate Union*), a classical Chinese novel from the *cai zi jia ren* (talented scholar and beautiful lady) genre, recognized as one of the earliest Chinese novels translated into English. Davis’s translation sought to bridge the cultural gap between China and the West during a period of escalating tensions in British–Chinese relations. By positioning himself as a cultural mediator, Davis aimed to provide clarity and accessibility while educating his readers about Chinese customs and values.

The study analyzes Davis’s translation motivations and objectives, his use of paratexts such as prefaces and footnotes, and his translation strategies. Davis’s approach included significant cultural adjustment, often employing paraphrasing to enhance Western readers’ comprehension. He omitted certain Chinese idioms and customs that he deemed obscure or irrelevant to Western readers, and in some instances, restructured characters and scenes to meet Western expectations of a romantic narrative. However, this method resulted in a partial loss of the original text’s moral teachings and Confucian values. This paper also reviews the

contemporary reception of *The Fortunate Union*, noting its positive appraisal as a more complete and faithful translation compared to earlier European renditions. This analysis highlights both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Davis's cultural adaptations, reflecting the complexities and challenges of early Chinese–West literary translation.

Keywords: 중국(China), 호구전(The Fortunate Union), 존 프랜시스 데이비스(John Francis Davis), 1829년(year 1829), 번역(translation), 영어(English), 로맨스(romance), 파라텍스트(paratexts), 의역(liberal translation), 문화 조정(cultural adjustment)

